

결을 거슬러 역사를 술질하기: 구본창의 사진들

January, 2019 | 이상엽 (예술학)

page 1 of 6





〈EW 05〉 2008 백자 C-프린트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한국

artist II

Koo Bohn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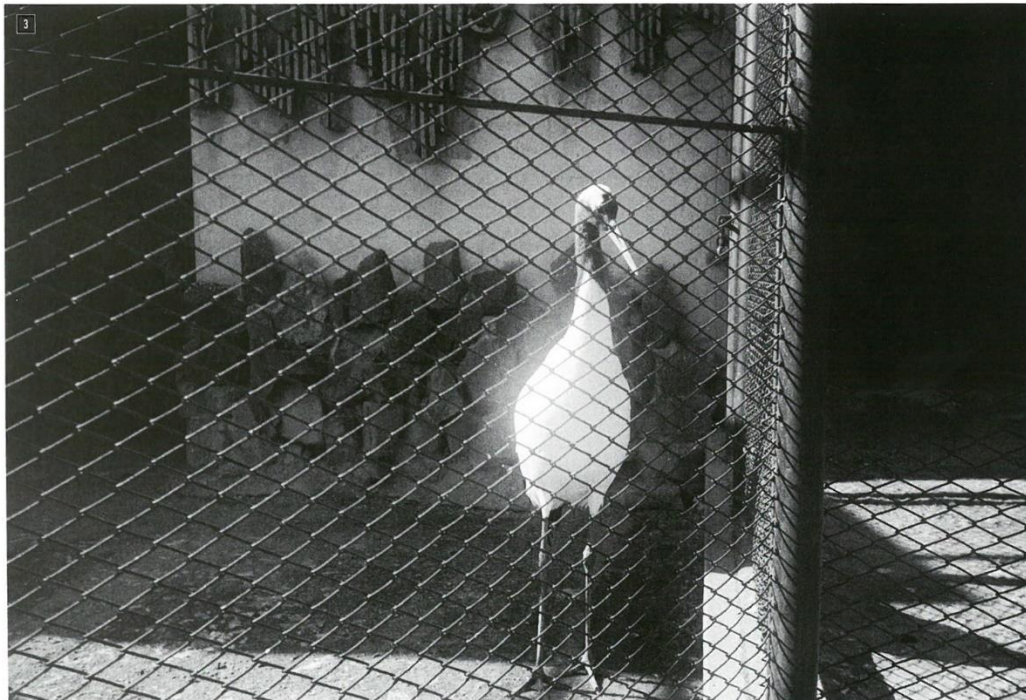
결을 거슬러 역사를 술질하기: 구분창의 사진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1940)라는 글에서 진정한 역사가의 과제를 "결을 거슬러 역사를 술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승리자와 그들의 후예들이 형성하고 기록해 전승시킨 보편 역사의 부드러운 결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고, 멈춰 서서 그 반대 방향으로 역사의 결을 그려보는 일이었다. 그것은 역사가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을 관통해 진행해간다는 생각과 분리되는 것이었고, 통상적인 역사서술에서 나타나는 역사에 연속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일이었다. • 이상엽 예술학 • 사진 KOO Studio 제공

작가 구분창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로 넘어가 함부르크 조형 미술대학에서 사진 디자인을 전공해 디플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서울 파인 힐 갤러리에서 개최한 개인전을 시작으로 함부르크, 도쿄, 오사카,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비엔나, 밀라노 등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하며 중형무진 활동해 온 그는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 학부에 재직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개인전 〈Koo Bohnchang〉을 선보이고 있다.



1. (OSK 38) 200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청화 소경화: 오사카 동양 도자 미술관 2. (CM 17) 201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90x72cm 정월백자 소경화: 교토 이도야키연구소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3. '인' 오후의 미물 시리즈' 1990년대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 국제갤러리의 부산점 구본창 개인전 (Goobongchang, 설치 작품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한곳으로 수렴하지 않는 사진들

구본창, 그의 이름 앞뒤로 '작가'라는 명칭이 붙은 지는 30년이 더 지났다. 30여 년간 구본창은 그 명칭을 달고서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들은 차곡차곡 쌓여 작품이라는 결과물이 되고, 결과물 중 일부는 때가 되면 전시라는 큰 틀에 묶여 세상에 보여졌다. 그가 부지런히 일구어 온 사진의 역사는 어느덧 한국 현대 사진 역사의 계보를 그릴 때도 빠질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의 사진 중에서 '백자' 연작(2004-)은 구본창의 대표작이라 불리며 대중에게도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구본창의 사진 역사를 선행적인 시간의 흐름 가운데 대입해 볼 때, 원편을 과거로 두고 오른쪽을 현재로 두면서 그려지는 기다란 선에서 오른쪽 가장 끝에 위치할 사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 누구든 '백자' 연작을 떠올릴 것이다. 아마도 '백자' 연작이 그가 최근 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작업이자 그의 '대표작'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선행적이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관점을 구본창의 사진 역사에 적용하면 '백자' 연작은 꼭짓점에 위

치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걸출한 '구본창 사진'의 정수로 그 위상을 치켜세우는 일이 가능해진다. 연대순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형성된 결은 그의 사진사 전반을 연속체로 바라보게끔 한다. 가령 작가의 심리적 불안감과 내적 갈등이 사진 속에 그대로 드러나며 내면으로 침잠하던 시기에 찍은 초기 작업 '긴 오후의 미행'(1988)과 '태초에'(1990-1998), '숨'(1995)을 차례로 거친 후, '시간의 그림'(1998), '자연의 연필'(2000), '오션'(2002)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강렬한 이미지의 형성에 집중하던 이전 방식을 벗어나 추상에 가까운 이미지를 포착하며 보다 관조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나고, 앞선 태도의 연장선에서 '백자' 연작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다 객관화된 시선을 확보하며 사진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해석이 가지는 위험성은 그의 작업 전반을 공통분모를 지닌 연속적 맥락으로 묶어내면서 이 속에 환원될 수 없는 그의 사진이 가진 불연속적 측면들을 간과한다는 점에 있다. 구본창의 모든 사진들은 '백자'

로 수렴 가능한가? 그의 대표작인 '백자' 연작이 그의 모든 사진을 대표할 수 없음을 인지하면서, 결을 거슬러 그의 사진 역사를 솔질해보기로 한다. 결의 반대 방향으로 빚어내는 솔질 가운데 부드럽게 빗기지 않고 끊기고 멈추는 곳, 그곳에서 탈각되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목해 본다.

'백자' 연작의 균열과 비늘

커다란 사각 프레임 속 연분홍빛이 도는 배경 한 가운데 점잖게 놓인 단 하나의 새하얀 물집. 조선시대 백자. 언뜻 보면 이 사진은 15-16세기에 제작된 조선 백자가 가진 소박하고 고졸한미를 관람객에게 다시금 느끼도록 권하는 것처럼 보인다. 백자의 아름다움에 물입한 관람객은 어쩌면 "아, 우리의 옛 것, 전통이 지닌 아름다움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조선 백자의 단아하고도 기품이 묻어나는 여백의 미..." 등의 감동 어린 감상을 이어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감상이 더 깊어질 즈음 작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선은 이내 작품 캡션에 도달한다. 작품의 제목과 제작 시기를 거쳐 발견하게



되는 정보는 다름 아닌 백자의 소장처다. 교토의 한 박물관, 오사카의 다른 박물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또 다른 박물관들. 사진 속 아름다운 조선 백자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의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백자' 연작을 바라보며 갖는 감상은 단순히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빛어낸 도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만으로 수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진 속 백자를 유심히 들여다 볼 때 보이는 세월을 머금고 노쇠한 물질 표면에 드러난 미세한 균열처럼, 사진 감상에 있어서도 균열을 일으킨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9년 구본창은 어느 책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에서 오스트리아 도예가 옆에 놓인 조선시대 백자와 마주한다. 타국의 무균실 수장고에 보관된 조선 백자들은 이 계기를 통해 그로부터 15년 후인 2004년 잠시 동안 자국민과의 조우, 어쩌면 구원일지도 모를 순간을 맞는다. 수백 년 동안 타향의 컴컴한 공간에 병동되어 있던 백자들은 찰칵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해동되기 시작한다. 다시 현재, '백자'가 가진 수백 년의 역사와 백자를 촬영한 '백자' 사진이 가진 십수 년의 역사는 서로 맞물리며 보얗게 미화된 백자 이미지의 비늘을 벗겨낸다.

술집이 멈춘 곳

구본창의 사진 역사를 거꾸로 술집하는 중에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2018년 9월 선보인 그의 개인전이었다. 구본창은 <시작을 돌아보다 EARLY WORKS 1970-1990 my

beginnings>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가졌는데,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2018년 현재 시점에서 꽤나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당도하는 1970년부터 1990년에 걸친 작가의 초기 작업을 보여준다. 구본창에게 작업의 '시작'이 되었던 과거의 사진들은 삼십십 년이 더 흐른 지금에 '돌아보아야만 볼 수 있는 이미 종료된 시간을 회고하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잠정적으로 유예된 시간 가운데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며 오래도록 머물다가 다시 그 위로 빼꼼 솟아난 상황으로 읽어볼 수도 있다. 이 전시는 구본창의 사진 역사를 굳건히 세우고 다지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더하는 현재의 흐름 가운데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며 속도를 늦추는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를테면 이 전시가 회고전의 형태로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빠짐없이 구본창의 사진 역사를 개괄하고 그 성과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0년에서 1990년에 걸쳐 찍은 사진 중에는 구본창이 작가의 명칭을 달기 전에 촬영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습작 사진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문턱이로 현재에 면저진 역사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기 작업의 등장은 앞서도 말했듯이 구본창의 사진들이 '백자' 연작으로 귀결되는 일방향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며, '백자' 연작이 다 포섭하지 못하나 그의 사진에서 충분히 발견 가능한 새로운 터전을 엮어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이 전시는 예기치 못한 솟구침이 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향하던 구본창 사진 역사의 연속성

을 끊어내고 그 역방향성을 내포하며 다른 물질을 터보게끔 한다.

과거에 있는 미래: '시선 1980' 연작과 '긴 오후의 미행'

사진은 그 매체가 가진 특성상 사진가의 의도를 벗어나는 영역까지도 포함한다. 사진가가 사진을 찍을 당시 의도하지 않았고, 그 당시 알지 못했던 정보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재발견되고 다른 맥락에서 읽히기도 한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러한 사진의 가능성은 구본창이 1980년대 한국 도시 풍경을 담아낸 다량의 스냅사진이 가진 잠재성과도 연결된다. '시선 1980' 연작(1985-1989)과 '긴 오후의 미행'(1988)은 그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6년의 시차 동안 급변한 1980년대 서울의 풍경과 전국 도시 풍경을 담아낸다. 그는 행형 색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과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은 남성의 테이트 풍경부터 갓 세워진 아파트 맞은 편 헬리코프 있는 구식 건물과 그 앞에 주차된 이제는 구형이 된 자동차들을 함께 담은 풍경, 천호동과 중앙극장을 잇는 1980년대 시내버스 등을 속도감 있게 찍어냈다. 사진을 찍는 당시에 가장 최신이었던 풍경들은 현재에 이르러 또 다른 새로움에 덮여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변형과는 거리가 먼 낡은 풍경이 되었다. 구본창의 1980년대 스냅사진은 그의 의도 바깥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버랩 시키고, 그의 손길 너머에서 다시 채굴되며 현 재성을 획득한다. ■



1. (원수리) 1980년대 C-프린트 2. (원수리) 1987 C-프린트 3. (원수리) 2003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